

한화, '가을야구' 이상 성적 노린다

12년 만에 류현진과 재결합
1선발 유력... 안치홍
김강민·페라자 등 영입
손혁 "꾸준한 강팀 될 것"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마침내 류현진(37)과 손을 맞잡았다. 12년 만에 류현진과 재결합한 한화는 '가을야구' 이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지난해 한화는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으나 순위가 겨우 한 계단 끌어올려 9위에 머물렀다.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한화는 전력 보강을 위해 바쁜 겨울을 보냈다. 리그 정상급 2투수 안치홍과 4+2년, 총액 72억원에 계약을 맺었고, 2차 드래프트에서 베테랑 외야수 김강민을 지명했다.

외국인 타자도 바꿨다.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와 총액 100만 달러(약 13억원)에 계약했다. 페라자는 빠른 배트 스피드를 바탕으로 강한 타구를 생산하는 중장거리 유형의 타자다. 지난해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121경기 타율 0.284 23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22의 성적을 냈다.

한화는 새 시즌 도약을 위한 전력 구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팀을 상징했던 에이스가 12년 만에 돌아왔다.

한화는 22일 류현진과 계약기간 8년, 총액 17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총액 170억원은 KBO리그 역대 최고 대우다.

이 계약에는 남은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 될 수 있는



류현진과 12년 만에 재결합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가을야구' 이상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사진은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류현진과 박찬혁 구단 대표이사(사진 왼쪽).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유프아웃 조항이 포함됐다. 류현진과 한화는 세부 유프아웃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06년 한화에서 KBO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7년 동안 통산 190경기에 출전해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0을 작성했다. 2012년을 제외한 6시즌 동안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류현진은 2012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MLB 진출에 성공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LA 다저스에서 활약했고, 2020년부터 4년 동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운드를 지켰다. 통산 성적은 186경기 78승 48패 평균자책점 3.27을 남겼다.

2022년 6월 팔꿈치 인대재합 수술(토미존 수술)을 받은 후 재활에 전념한 류현진은 지난해 복귀해 건재함을 뽐냈다. 11경기 모두 선발 투수로 출전

해 3승 3패 평균자책점 3.46의 성적을 냈다. 몸 상태만 건강하면, 올 시즌 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톤 큰 투자로 전력을 강화하며 가을야구를 꿈꾼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의 가세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일만 남았다. 류현진과 계약 후 손혁 한화 단장은 "목표는 꾸준한 강팀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시스

야구 꿈나무들, 순창에 집결

23~28일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3000여명 선수·학부모들 순창 방문 예정

스포츠산업의 메카 순창군이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대규모 유소년 야구대회 유치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9회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팔덕다목적경기장 등 10개 구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며, 135개의 유소년 야구팀이 출전하여 3,000여명의 선수 및 학부모들이 순창군을 찾을 전망이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이 후원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유소년 야구발전과 순창군의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진행방식은 초반 4일간은 토너먼트전으로 진행되며, 후반 2일간은 본선경기가 치러질 예정으로 연령대별로 새싹리그, 꿈나무리그(청룡, 백호, 현무), 유소년리그(청룡, 백호), 주니어리그(청룡, 백호) 등 8개 리그로 나누어 진행된다.

군은 대회 준비를 위해 유등심진강 체육공원 등 특설구장 5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경기장을 마



지난해 열린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사진=순창군청 제공)

련했으며, 마운드 정비 등 성공적인 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의 준비를 바랐다.

이번 대회에 연인원 1만2,000여명이 순창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들도 예약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즐거운 환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는 연인원 1만명이 넘게 순창군을 방문하는 대회로 가장 중요한 대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에 더욱더 노력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희 기자

2024 김제시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소프트테니스협회·줄넘기협회 회원단체 가입 승인 가결

김제시체육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민선2기 한유승 회장을 비롯한 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 회의록 초록 보고, 임원 변동 사항 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 결과 보고, 2023년도 예산 결과 보고, 감사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김제시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안), 회원단체 가입 승인, 회원단체 탈퇴 승인 총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회원 종목단체 신규 가입(안) 심의를 통해 김제시 소프트테니스협회와 김제시 줄넘기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 승인 가결됐다.



한유승 회장은 "민선 2기 체육회장으로 취임한지도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김제에서 도민체전 개최와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도 얻었고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기여한 임원들과 체육으로 봉사를 해주신 많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체육도시 김제로 끊임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장애인체육회, 한공 활성화 한다

정기 이사회 열고 장애인한공연맹 준가맹단체로 승격

완주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희태)가 완주군장애인한공연맹을 준가맹단체로 승격했다.

22일 완주군은 완주군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사회비 규정 개정(안), 완주군장애인한공연맹 준가맹 승격(안) 총 4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이사 및 감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군장애인한공연맹은 생강골 장애인

작업장에서 '평생학습 한공 교실'을 열고, 찾아가는 한국 교실 운영, 우수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공의 자원을 넓혀가고 있는 점이 인정됐다.

한공은 국공, 투호, 양궁, 다트를 접목한 것으로 표적에 핀을 던져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한 해 완주군 장애인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임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최근 열린 2024 완주군장애인체육회 정기 이사회. (사진=완주군청 제공)

도입해 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완주군 장애인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